

렌즈로 본 세상을 말한다



관조 스님 사진展 '깨우침의 빛'

27일 '관람객과의 만남' 양평 와갤러리서

승려 사진작가 1세대, 관조(觀照) 스님. 1980년 <승가>이라는 작품집으로 아름다운 깨달음의 찰나를 담은 단아한 사진을 선보여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스님은 생사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리 속에서 그 내면의 풍경을 담아내고 고요하게 렌즈에 담아냈다. 스님의 사진은 국내 최초로 선(禪)수행자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본 명상사진이어서 더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진을 본 모든 이들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란다"는 목적의식을 잊지 않으며 한길로 30년간 정진해 온 관조 스님은 렌즈를 통해 무엇을 보고 말하고 관조(觀照)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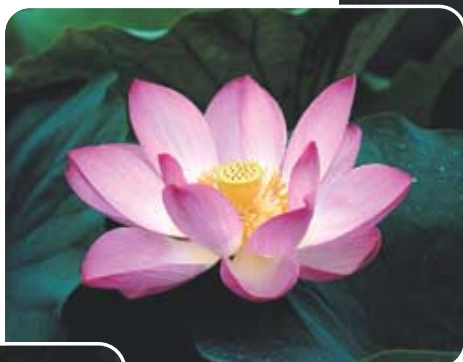
5월 27일 오후 3시 경기도 양평 사진갤러리 와와wa에서 관조 스님을 만나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만남은 관조 스님이 사진으로 보여준 당신의 명상세계로 초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진갤러리 와와wa에서는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깨우침의 빛' 관조 스님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6월 5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스님이 지난 30년간 찍어 왔던 명상사진 7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사진 가운데 하나인 '솔잎과 나뭇잎'은

에 담겼다. 그래서인지 스님은 전시회장에 '내 한마디 하고자 하니/ 생각을 끊고 대상에 대한 집착을 잊어라/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았으니/ 봄이 오니 풀이 질로 푸르구나'라는 계송을 내걸어 나름의 관람포인트(?)를 제공한다.

1960년 지호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한 관조 스님은 선방에서 가부좌를 뜨는 대신, 사진을 수행이자 포교의 방법으로 정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스님의 '사진 수행'은 동료 스



님들의 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면서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뒤인 1980년 첫 작품집 <승가>를 발간해 주목을 받았다.

스님들의 생활을 렌즈에 담아내던 스님은 세상만물이 모두 부처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듯 자연에 렌즈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스님은 유려하지 않으나 시선과 마음을 잡아끄는 은은한 자연풍광과 함께 속세의 미려함보다는 깨달음의 맑음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부산 범어사에 머물고 있는 관조 스님은 <열반> <자연> <생, 멸, 그리고 윤회> <님의 풍경> <깨우침의 빛> <한줄기 빛> <꽃문> <한국의 꽃살문> 등의 사진집을 냈다. 이 가운데 <한국의 꽃살문>은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권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대벽·안장현·한석홍씨 등 문화재 전문 사진가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를 펴내기도 했다.

"좋은 사진 한 장은 깨달음의 순간을 잡아채는 것"이라는 관조 스님을 만나러 이번 주말 떠나볼까. (031)771-5454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수행자가 본 '깨달음의 찰나' 30년간 작업한 70여점 선배 "사진 보고 마음 맑아지길..."

양평에 위치한 사진 갤러리 '와'에서 열리고 있는 관조 스님의 사진전에서는 '윤회'와 '무상'을 담은 작품 70여점을 만날 수 있다.



금동삼존불감(국보 제73호).

고르고 고른 최고의 명품

'간송 탄생 백돌 특별대전'

간송미술관 6월 4일까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금동삼존불감(국보 제73호), 해원 신윤복의 '해원전신첩'(국보 제135호) 등 국보를 한 자리에서 보자.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관장 전영우)이 간송미술관을 세운 간송(澗松) 전형필(全鏞弼, 1906~62) 선생의 탄신 100돌을 맞아 '간송 탄신 백주년 기념 특별대전'을 개최한다. 일제시대 일본으로 넘어가는 우리 문화재를 사재를 털어 막대한 간송 전형필 선생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스타 컬렉터로 유명하다.

금동삼존불감 등 100점 엄선

5월 21일~6월 4일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간송미술관의 명품 100점이 전시장을 빛낸다. 100점의 명품들은 국보 12점, 보물 10점 등을 포함해 도자기 그림 글씨 불상 등 각 분야별 최고의 작품들. 간송미술관의 70번째 전시이기도 한 이번 전시회는 간송 소장품의 전모를 보여주기 위해 고르고 고른 최고의 소장품만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청자색 바탕에 창공을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이 아름다워 '천학매방'이라는 별명이 붙은 '청자상감운학문매방(靑磁畵嵌雲鶴文梅瓶·국보 제68호)', 재미명금동삼존불입상(국보 제72호) 훈민정음 원본(국보 제70호), 단원 김홍도의 '마상청영(말 위에서 피꼬리 소리를 듣다)', 해원 신윤복의 풍속도를 모은 '해원전신첩'(국보 제135호)과 '미인도', 겸재 정선의 '단발령망금강(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다)' 등은 해마다 봄·가을에 열리는 정기전 등에서나 간간히 볼 수 있었던 명품들이다.

이외에도 청자기린행랑로(국보 제65호), 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국보 제66호), 청자원형연적(국보 제270호), 청자합형연적(국보 제74호), 청화백자양각진사철채연국조충문병(국보 제294호), 동국정운(국보 제71호) 등이 출품된다. (02)762-0442 강지연 기자

특별한 만남

클래식과 시조창

니르바나 템플스테이 음악회

템플스테이와 클래식 그리고 시조의 만남.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5월 27일 오후 8시 부안 내소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템플스테이-내소사의 봄'을 개최한다.

사찰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 연주와 더불어 국악과 시조 낭송이 이어지는 템플스테이 음악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니르바나 실내악단 피아노 5중주 무대는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의 물결'로 시작해 김성태씨의 '대금가락' 임소애씨의 시조창 '열불 도드리' 최여울씨의 25현 가야금 '한 오백년' 강형진 단장의 '바람부는 산사' '마하반야바라밀' 등이 연주된다.

이번 공연에는 (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 소속 이인자 서공식 시조시인이 '내소사에 피는 꽃' '소리 없는 말씀' 등의 시조 낭송으로 색다른 세계를 맛볼 수 있다. (02)415-2599

강지연 기자

서도소리와 범패

이춘목 선생·지수 스님 한 무대

광명시민회관에서 범패와 서도소리가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이춘목 선생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석사 졸업하는 지수 스님이 함께 '서도소리와 범패의 만남'을 5월 25일 저녁 7시 광명시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지수 스님의 석사 학위 졸업 공연이기도 한 이번 무대에서 평생 서도소리만 해왔던 이춘목 선생이 범패와의 만남을 시도했다.

지수 스님은 천수바라무와 향화계를 전통 의식 그대로 재현한다. 징과 북가락으로 반주를 넣는 범고무는 반주 음악의 가락을 바꾼 창작물로 무대에 올린다.

지수 스님은 "범패 소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서도소리를 공부했는데 이번 특별한 무대에 설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02)2680-2564



사진. 스님은 가을비가 촉촉이 내린 어느 날 나무 밑바위에 붙어있는 솔잎과 나뭇잎에서 윤회를 봤다. 왜 윤회일까. 솔잎과 나뭇잎이 짝으로 나왔다가 생을 다해 떨어지고 그것이 이제 거름이 될 모습이기

에 그것은 바로 생과 사요, 윤회인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치 고요한 산사에 든 것 같은 편안함과 봄날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마련됐다. 소소한 자연에서 나뭇잎 하나, 풀잎 하나,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스님의 생각은 그대로 사진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진동 비빔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속 조청**

- 산속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속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속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숯이오르지않은 **산속 참죽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혈압,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속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은간장을 세가배서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속 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몰렛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속 조청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규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천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밀번호)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연대칼라지붕공사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앰프, 설비 전문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